

남원 야시장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비 5억 확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서민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남원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원공설 시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야시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는 야시장 공모사업에 남원공설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해 선정되어 추진중인 예가람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함께 행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2년연속 선정되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야시장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자원, 남원예촌, 고생골목과 인접한 공설시장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살려 월매제 시장가치를 기본컨셉으로 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외부관광객의 체류유인을 제공,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특화골목을 조성하여 중장년층 고객 유입은 물론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국가별 대표적 세계음식 판매를 통해



남원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원공설시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야시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젊은층 고객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야시장 조성사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초 예가람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분야별 사업추진에 돌입했으며, 야시장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중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후 내년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봄맞이 경관조성지 사업 추진

은행나무 가로수 269그루 대상 가로수 전정사업 완료

임실군이 봄철을 맞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거리를 선사하기 위한 경관조성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임실 이미지를 심기 위해 가로수 거리환경을 각별히 관리하고 있는 임실군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사업은 가로수 전정과 수목시비 등 가로수 나무와 화단조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km에 해당되는 운암면 쌍암리 면소재지에서 사양리 장진영 기념관 구간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

269본을 대상으로 가로수 전정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전정사업을 통해 은행나무의 병해충 피해방지, 도장지, 교차가지, 맹아지 등을 솜아내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함으로써 수목 수형을 조절하고 재해 및 영농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수목생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임실진입 도로변 철쭉식재지 1개소(2,000㎡)와 화단 2개소(3,000㎡), 가로수 1개소(1km)에 유기질비료인 퇴비와 복합비료 및 조경용 고품비료 총 29,000kg를 도포하는 시비사업을 추진, 현재 마무리 중이다.

이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더욱 풍성한 꽃과 푸르른 나무 등 보다 쾌적한

가로 경관이 연출 될 전망이다. 군은 또한 자체인력인 경관유지관리원을 활용하여 가로수와 화단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녹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임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임실이라는 첫 느낌을 심어주려면, 가로수 경관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계절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로 겹겹이 덮여 있고,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농업용 자격증 취득반 '호응'

농업용 드론·소형 굴삭기·지게차 등 교육

순창군이 농업용 드론, 소형 굴삭기, 지게차 등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돕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은 올해 처음 개설한 강좌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목 받고 있다. 실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은 급속히 발전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10명 규모로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미 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은 위탁교육 형식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는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도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갈수록 노동력은 감소하고 영농 규모는 커지는 농업 현실에

서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는 꼭 필요한 농기계로 되고 있다. 실제 농촌에서는 이제 벼 가마니를 지게차가 대부분 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학원에서 1박 2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첫 교육에는 130여명의 농업인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군에서는 2016년부터 소형 중장비 자격 취득반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19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는 소형 굴삭기 5대를 확보해 전년도까지 자격증 취득 농가를 대상으로 296회 344농가에 굴삭기를 임대해 포장, 배수로 정비, 농작물 굴취작업, 농작물 운반 등 영농현장에서 활용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난사랑회 춘란 전시회

제5회 남원 난사랑회 춘란 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남원관광단지내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회원 20명으로 구성된 난사랑회원들이 춘란(春蘭)의 빼어난 자태와 향기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춘란은 우리나라 산하에 자생하는 토종 식물로 봄이 왔음을 알린다는 뜻에서 보춘화(報春花)라고도 하며, 가냘픈 자태속에서도 강인함과 고고함을 간직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번 행사에는 300점의 한국춘란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동안 전국의 애란인이 찾아와 난꽃의 향기와 함께 봄의 기운을 만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남원시가 올해 14억2,000만원 들여 49만3,695포(1만16ha분)의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는 양질의 상토공급으로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하순부터 각 읍·면·동 농가 및 공동육묘장에 육묘용 상토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지역을 산간부와 중평야부 등지로 구분해 범시 침종이전에 벼 육묘용 상토를 공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벼 육묘용 상토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한다. 쌀 직불금 자료에 의한 재배면적을 기본으로 사업 농가의 희망 상토 유형에 따라 경량,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트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

순창군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올해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면서 순창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섬진강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요강바위 등 각종 지리적 자원과 옛 농경문화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장군목 주변을 순창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해마다 8억원씩 72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토탈관광을 이룰 핵심 사업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군은 2016년 10km 구간에 수변을 따라 교육이나 관광을 위해 탐방객들에게 휴식공간과 수변완충 경관개선을 도모하는 기본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을 통해 장군목의 장점을 한껏 활

용한 사업들이 본격화 된다. 요강바위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내룡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돌이다. 높이는 2m, 폭 3m 무게가 20톤에 달하며 가운데 흠이 움푹 파여 요강처럼 생겼다 해 요강바위로 불려진다. 아기를 낳기 원하는 여인이 요강바위 위에 앉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요강바위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물살을 견뎌온 바위들이 기이한 풍경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군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요강바위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진입로부터 징검다리과 들레 탐방길을 만든다. 물역새 꽃창포, 구절초도 심어 주변 경관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바이오모픽 곤충아트 특별전

국립과학과화관에서 '2018바이오모픽 곤충아트 특별전'이 4월 29일까지 남원시 후원으로 개최된다고 14일 전했다.

국립과학과화관에 마련된 이번 곤충아트 특별전에는 남원시가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던 만화경수조와 야광골격표본 등 이색적인 곤충아트작품과 다양한 곤충체형전시물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곤충산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남원시 자체적으로 기획한 '2017겨울방학곤충아트특별전'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벤치마킹 사례가 많은 전시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